

정의선의 차 모하비, '더 마스터'로 귀환… 6인승도 추가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기아차 '모하비 더 마스터' 출시

간결하고 넓은 수평구조로 전환
퀄팅 시트로 고급 세단 분위기 연출
최고 260마력, 8단 자동변속기 조합
사전계약 11일 동안 7000대 기록



기아차 모하비 더 마스터.

담았다.

기아차는 5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모하비 더 마스터' 출시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2008년 출시 당시 '정의선의 차'로도 불린 모하비는 세대 변경 없이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만 거쳐 '사골' 이란 별명으로 유명하다.

두 번째 부분변경 모델인 모하비 더 마스터는 지난 3월 서울모터쇼에서 공개된 콘셉트카 '모하비 마스터피스'의 혁신적인 디자인 변화를 거의 그대로

내부 디자인은 간결하고 넓은 수평 구조로 바꾸고 나파가죽 퀼팅 시트를 적용해 고급 세단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12.3인치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음성인식 공조 제어와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

트, 서버 기반 음성인식 카카오아이, 차에서 집 안의 기기를 제어하는 카투홈 등 다양한 커넥티비티 기능도 갖췄다.

파워트레인은 종전 모델과 같은 최고 출력 260마력, 최대토크 57.1kgf·m의 V6 3.0 디젤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로 조합됐다.

다만 새롭게 적용된 '액 구동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R-MDPS)'으로 조향 장치의 민첩성을 높였다. 아울러 후륜의 쇼크업소버 장착 각도 등 서스펜션 구조를 바꾸고, 보디와 새시를 연결하는 부위의 고무(보디 마운팅 부시)를 강



기아차 모하비 더 마스터 내부 모습.

화하는 등 승차감 개선을 시도했다.

특히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 S)이 대거 기본으로 적용됐다. 정차와 재출발 기능을 갖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유지보조, 고속도로주행보조, 하이빔보조 등이 탑재됐다.

기아차는 모하비 더 마스터로 6인승 모델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기존에는 5인승과 7인승 모델만 있지만, 2열에 2명이 앉는 독립시트를 적용한 6인승 모델이 추가됐다. 2열 시트에도 열선·통풍 기능을 탑재하고, 중앙에 팔걸이를 배치했다.

6인승 모델 추가를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 모하비는 출시전부터 소비

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사전계약은 영업일 기준 11일 동안 약 7000대의 계약 대수를 기록해 모하비의 인기를 입증했다. 사전 계약 고객의 90%는 상위 트림인 마스터즈를 선택했고, 외장 색상은 오로라 블랙펄이 60%를 차지했다. 기아차는 모하비의 연 판매목표를 2만대로 잡았다.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를 기준으로 플래티넘 트림 4700만원, 마스터즈 트림 5160만원부터다.

기아차는 사전계약 및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산티아고 길 원정대'를 선발해 광고 촬영지인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정통 SUV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첨단 멀티미디어와 최신 사양으로 상품성을 강화한 최고의 프리미엄 SUV 모하비 더 마스터를 출시해 최고의 상품성과 품질을 추구하는 대형 SUV 고객들께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IFA 2019

첨단 AI·IoT·5G 만난 가전 유럽에 커넥티드 리빙 '깃발'



삼성전자

유럽 최대 3050평 전시·상담 공간 마련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혁신제품 선봬

삼성전자는 6일부터 11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9'에서 AI·IoT·5G 등 첨단 기술과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혁신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메세 베를린에 위치한 시티 큐브 베를린에 업계 최대 규모인 약 3050평의 전시·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삼성 타운'을 조성한다.

관람객들은 삼성 타운에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홈 IoT 솔루션을 제시하는 '커넥티드 리빙 존' ▲8K 시대를 주도할 최신 제품과 기술로 구성된 'QLED 8K 존' ▲소비자 취향대로 빌트인 스타일 주방을 꾸며 놓은 '비스포크 존' ▲최신 5G 갤럭시 스마트폰 풀 라인업을 전시해 5G 기술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존' 등을 만날 수 있다.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커넥티드 리빙 제시

삼성전자는 관람객들이 삼성 타운에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커넥티드 리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장 중앙에 6가지 형태의 라이프스타일 존을 구성하고, 삼성의 독자 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와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의 연동을 보여 준다.

'바쁜 맞벌이 부부'의 공간에는 카메라·센서 등을 통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도 자녀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있는 곳에 접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나리오를 보여 준다.

◆8K·초대형·라이프스타일 TV로 프리미엄 시장 주도

삼성전자는 QLED 8K 존을 마련해 55형부



IFA 2019 공식 모델과 삼성전자 모델들이 IFA 2019 삼성전자 전시장에서 55형부터 98형까지 'QLED 8K' T.V. 풀 라인업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터 98형까지 전 라인업을 전시하고 8K 대세화를 강조한다.

관람객들은 퀸텟닷 기술이 적용된 8K 화질을 다양한 크기의 스크린으로 경험할 수 있다. 삼성 QLED 8K는 입력되는 영상의 화질에 상관없이 8K 수준으로 변환해 주는 인공지능 화질 엔진 '퀀텀프로세서 8K AI'를 탑재해 라이브·스트리밍·모바일 미러링 등 모든 콘텐츠를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가전으로 유럽 시장 공략

삼성전자는 이번 IFA에서 소비자 맞춤형 가전 시대를 열 비스포크 냉장고를 필두로 의류 청정기 에어드레서, 공기청정기 무풍큐브, 무선 청소기 제트 등 혁신 라이프스타일 가전을 대거 전시한다.

비스포크 냉장고는 소비자 취향에 따라 제품 타입·색상·재질을 선택할 수 있고 주방가구와 조화롭게 빌트인 룩을 구현할 수 있으며, 내년 1분기부터 유럽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최신 5G 갤럭시 스마트폰 풀 라인업 전시

삼성전자는 갤럭시 A 시리즈 최초의 5G 스마트폰 '갤럭시 A90 5G',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성능으로 더 강력해진 '갤럭시 노트10', 세계 최초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폴드' 등 최신 갤럭시 5G 스마트폰을 대거 선보인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차원 다른 제품으로 생활가전 혁신 '어디서든 내집처럼'… LG비전 소개



'LG 미래기술 좌담회' 열고 비전 제시
인공지능·프리미엄 생활가전 등 공개



IFA 2019 전시회에서 모델들이 LG전자 전시관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인공지능 전시존 'LG 씽큐 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차원이 다른 올레드 TV 앞세워 프리미엄 TV 리더십 강조

LG전자는 세계 최고 해상도, 올레드 중 세계 최대 크기의 88인치 8K 올레드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를 선보인다. 8K 올레드 TV는 3300만개에 달하는 자발광 화소 하나하나를 자유자재로 조절해 화질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대규모 단독 전시관, 입구에는 올레드 초대형 조형물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 3799제곱미터(m²)의 대규모 부스를 마련했다. ▲거주 공간에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가치를 담은 'LG 씽큐 홈'

▲차원이 다른 올레드 TV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프리미엄 생활가전 등 다양한 혁신 제품을 선보인다.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가치를 담은 주거공간 LG 씽큐 홈

LG 씽큐 홈은 LG전자 전시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LG전자는 인공지능 가전으로 새로운 가치를 담은 주거공간 LG 씽큐 홈을 통해 IFA 2019에서 인공지능 선도기업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다.

LG전자는 LG 씽큐 홈에 '그레이트 리빙·키친', '홈오피스·홈시네마', '스타일링룸·세탁라운지' 등 실제 생활공간을 연출해, 독자 개발 인공지능 플랫폼 LG 씽큐 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등 외부의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제품들을 전시한다. /구서윤 기자

◆시장 선도 기술 탑재한 가전·IT기기 대거 공개

LG전자는 세탁물의 재질 분석해 최적 세탁 코스 제시하는 인공지능 DD모터 세탁기와 게이밍모니터 'LG 울트라기어', 'LG 시네빔 레이저 4K' 제품도 공개한다. 또한 LG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하반기 글로벌 출시 예정인 전략 스마트폰과 보다 진화한 LG 듀얼 스크린 신제품도 전시한다. 전시는 LG 듀얼 스크린의 다양한 활용성을 제시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멀티태스킹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편리함을 고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구서윤 기자